공동체 소식

주님공현대축일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 1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
- 쉬는 교우 가정

☞ 교황님 기도 지향 : 봉헌 생활 해인 올해에 수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을 다시 찾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기도합시다.

▣ 성탄 및 새해인사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요한1,16)."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온 누리와 우리 모든 가정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추어 주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밝아 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랑합니다!

▣ 자원봉사 국가 인증서(The President Volunteer Service Award)

오늘 중심미사 후, 회관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가대 활동은 성가단 장님이, 복사 시간 관리는 전례부장님이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주임신부님 모국방문

주임신부님이 오는 1/12(월) ~ 1/30(금)까지 한국엘 다녀오십니다. 사제서품식과 비자갱신을 위해서 입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두 주일(18일, 25일)동안 오클라호마 신부님께서 미사 주례해 주십니다.

▣ 청주교구 사제서품식

- 일시 : 1/15(목) 오전 10시
- 주례 :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와 사제단
- 후보자 : 주지욱 가시미로(감곡), 박형용 요셉(연수), 장건 알베르또(지현), 임종락 라파엘(흥덕), 최현 프란치스코(모충), 김인환 히폴리토(모충), 안주형 시몬(꽃동네)

▣ 기타

- 지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에 떡국잔치로 봉사해 주신 평협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중심미사 후, 성가대 신년모임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1월, 예수성심미사와 성모신심미사는 없습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 운영을 위해 교무금과 기타 도네이션으로 도움을 주신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주임신부 합장.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487	217	167/175	100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서은 세라피나
	문석찬 요셉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주	안광민 야고보	문호진 안토니오
	이우영 가브리엘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차주	최은미 아네스	정수한 베드로
		김주연 세실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백문주, 최은미, 박옥희
차주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28	76명	662불	1,320불
조영태, 배갑원, 고영방(총 3세대)			

☞ 고영방 스테파노 형제님의 감사헌금이 있었습니다.

주님공현대축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5년1월4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찬미예수님! 교우 여러분, 새해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15년 새해 첫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보내신 주님 강생의 축복과 은총이 올 한 해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의 정성으로 우리도 주님께 경배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그림 묵상

그분의 별을 품읍시다

무수히 빛나는 별 가운데 그분의 별을 찾은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혜안을 봅니다. 그 먼 여행길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쁘게 바치는 사랑의 행보가 뜨겁습니다. 이천 년 전 주님의 탄생이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늘을 우러러 그분의 별을 품으시기를 빕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 서 : 이사 60,1-6

화 답 송 :

○ 하느님 당신 슬기를 왕에게 내리소서.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내리소서.
의로써 당신 백성 다스리게 하시고 공의로써 그 가난한 이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

○ 정의가 꽃피는 그의 성대에 저 달이 다하도록 평화 넘치리이다.
그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물에서 땅 끝까지 왕하시리다.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왕들 예물을 바치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봉물을 바치리니
세상의 임금들이 모두 다 조배하며 만백성이 그이를 섬기리이다.◎

○ 당신께 하소하는 가난한 이와 외롭고 불쌍한 이를 구하시기 때문이니
약하고 아쉬운 이를 어여삐 여기시고 없는 이의 목숨을 살려 주시리이다.◎

제 2 독 서 : 에페 3,2.3ㄴ.5-6
<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 마태 2,1-12 <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

셋째 마

“믿음이라는 선물”

‘공현’이라는 말의 뜻은 ‘나타남’ 더 정확히 말해서, 전에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분명하게 나타남을 뜻합니다.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의 경우, 알려져 있지 않다가 분명하게 나타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대축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끔 우리 모두를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이 축일에 기뻐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공현 대축일은 당연히 우리 믿음의 축일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기에 우리들이 그분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 하느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함을 뜻합니다. 또한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을 실행할 각오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란 곧, 죄를 포기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가 그들에게 일러주었던 대로 예루살렘을 거쳐 가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길”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순박한 목동들에게 일어났던 것이 그들에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일들로 돌아갔지만, 이전의 죄들로는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 통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은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초대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같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게 해서 그러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성령이 잊혀질 때, 빛과 기쁨은 성령과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충만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더욱 성장시키고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답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와 나누는 방법일 것입니다. 분명, 동방 박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비밀을 자신 안에 담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그들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순히 말로써가 아니라,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공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황 현 율리오 신부 -

주춧돌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제7 장 혼인성사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태 19,4-5).

【설명】

한 몸이 될 것이다 : 창세 2,24에서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로 되어 있고, 에페 5,31에서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로 되어 있다.

【교회의 가르침】

▶ 혼인이란 무엇인가? 우리 옛 어른들은 혼인을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 보았다. 곧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 말이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함부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혼인은 하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남녀가 자유로이 맺는 약속이고 철회할 수 없는 성스러운 약속이다. 남녀가 일생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하는 혼인성사(婚姻聖事)로 한 가정이 탄생한다. 가정은 사회와 교회의 기본 세포다. 그리하여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있다.

【어록】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 제도는 창조주께서 제정하셨으며, 그분께 고유한 법을 받았다. 이 결합은 본성상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이셨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60항).

▶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도이고,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올리셨으므로,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하여는 교회법과 아울러 교회법에 준용하는 국법도 지켜야 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102조).

▶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과 출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에 필수적이다. 일부다처제는 혼인의 단일성과 양립할 수 없고, 이혼은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가르는 것이며, 출산 거부는 하느님께서 부부 생활에 주시는, 자녀라는 “가장 뛰어난 선물”을 외면하는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64항).

▶ 합법적인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느님의 계획과 규범에 어긋난다. 그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지만 성체를 모실 수 없다. 그들은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65항).

▶ 혼인 예정자는 혼인성사를 받기 전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 있게 하여야 한다.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104조 2항. 3항).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